

무주군,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연휴기간 종합상황실 운영해 코로나19 예방·의료·교통 등 집중키로

무주군이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에 상황을 면해 운영(8개 반 32명 / 1일)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과 의료, 교통, 재해·재난, 쓰레기, 상·하수도, 가축방역을 비롯한 각 읍·면 상황에 집중할 방침이다.

설 연휴 이전부터도 전통시장 장보기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와 생활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각종 시설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조치를 강화해 갑작스런 재난 및 사건·사고에 대비해 간다는 계획이다.

또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각

읍·면 환경을 정비해 귀향객을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이 각자의 담당 마을을 방문하는 마을 담당관 제도(마을 1담당)를 활용해 소외 계층과 함께 하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도 만들어갈 예정이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김상운 팀장은 "코로나19 예방과 안전한 명절 나기를 위해 거리두기, 다중집합장소 방문 자제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4일간의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종합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예방이 우선이고 만일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무주에서 연휴를 보내는 모두가 불안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 명절을 전·후해 국토 대청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비롯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2월 8일까지 설 연휴 기간 세부추진 계획과 근무자, 비상연락망 등을 정리하고 10일에는 상황근무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행정력 집중

진안군, 금강수계관리기금 12억600만원 투입해 추진

진안군은 금강수계관리기금 12억600만원을 투입해 2021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2002년 수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이용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8개 읍·면(진안, 웅담, 안천, 동향, 상전, 부귀, 정천, 주천) 64개 마을, 560여명이며 각각 간접지원과 직접지원 형태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작년 하반기 마을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업계획으로 올해 2월중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진안군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월에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유의사항을 홍보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간접지원사업은 총 7억2,400만원으로 각 마을회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마을공동 친환경 유기질 비료(퇴비)·농기계 구입 등 소득증대사업, ▲마을 공동물품 구입·공동시설 설치 등 복지증진사업,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 등 오염정화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친환경 유기질비료, 퇴비구입사업의 경우 수질보전 및 보조사업 효율성을 위해 금년부터 강화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수변구역 내 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대상자별 배분 물량이 실경작면적에 비례하여 사용 적정 범위인 지 검토하여 지원하며, 납품과정 등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직접 지원사업은 총 4억8,200만원으로 수변구역 지정(2002년 9월 18일)이 전부터 수변구역 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가계생활과 밀접한 187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 지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직접 지원사업비는 대상자의 재산규모별로 차등지급(5등급)되며, 직접지원 대상자들은 상기 직접지원 조건 적격 여부, 재산규모 등 확인을 위해 오는 5일까지 주민등록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업 신청할 수 있다.

전춘성 군수는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해당 마을 주민들의 회의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는 만큼 사업 목적에 맞고 전체 주민 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유희 산림자원 자산화 사업 추진

무주군이 산림청 공모사업인 '유희 산림자원 자산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군이 지난해 11월 산림청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2억2,500만원을 확보하고 총 4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2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연내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산촌을 활성화하고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청이 2020년부터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군은 올해부터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 42-3 일원 2개 마을(설천면 진평마을, 원정마을)에 편백 숲 쉼터 조성하고 표고재배 하우스 시설, 소득작물 식재, 먹거리를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특히 사업이 진행될 2개 마을의 경우 우반리랜드를 비롯한 태권도원, 무주구천동, 무주덕유산 리조트 등 무주군이 보유한 관광지 주변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도 확보되는 셈이다.

황인홍 군수는 "산림을 활용한 관광, 체험, 산림복지 제공으로 산촌의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도 기대된다"며 "이번 유희 산림자원 자산화 공모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가속도를 붙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귀농·귀촌 지원정책 추진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경제·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산촌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전체 면적 6만 3,185ha 가운데 산림 면적이 5만 1,626ha로 82%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산림을 통한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극 홍보

장수군은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홍보를 위해 특별조치법 시행일립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군민들에게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대상부동산, 적용범위 등을 문자로 발송해 특별조치법 기간 동안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특수서비스이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관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했다.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

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적용된다.

등기신청을 원하는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2개월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현재 기준 장수군은 토지 162건, 건물 3건이 접수되어 토지 18건과 건물 3건이 확인서 발급을 받아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부동산 또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장영수 군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무주군은 2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 공익수당(30억8,400만원, 농민수당 전용카드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도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 경영체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어업면허·허가·신고 어가, 양봉업 등록 농가 등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친환경 농업팀 임인택 팀장은 "올해는 5,000여 농가가 대상이 될 거로 예상한다"며 "공익수당을 받은 농가들은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마을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농업·농촌 환경 실천에 동참하게 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신청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설맞이 고객감사 세일 행사

진안군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전주시 호성동 진안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설맞이 고객감사 세일 행사를 추진한다.

설 명절을 맞이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진안홍삼한우, 진안돼지고기, 계란, 인삼, 더덕, 생강청, 꽃감, 나물세트 등 축산물과 선물세트를 비롯한 약 20여종의 품목을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실시한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인 고추, 가지, 감자, 대파 등 38품목에 대해서는 전북 친환경 연합사업단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시중가보다 30% 할인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설맞이 할인행사 홍보를 위해 인근 호성동 지역에 플래카드와 전단지 약 80만 부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도내 동부권 최초 여성가족과 신설

진안군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전라북도 동부권 최초로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특화된 복지 분야 부서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여성가족과는 4개 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영유아, 노인, 아동·청소년 분야에 맞는 전문팀을 운영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 가족

센터 건립과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소홀하기 쉬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세심한 복지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저소득 보호아동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무주군,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지원

무주군이 출산과 육아용품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지원 사업을 실시(연중)한다.

육아용품 대여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대가지가 없을 경우

1개월씩 연장되며, 반납 1주전 신청해야 가능하다. 800만원을 투입해 지원되는 대여 물품은 유축기 25대(6개월), 수유시트 10대(3개월), 젖병 소독기 13대(6개월), 이유식 제조기 10대(6개월)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